

# Sony, OLED TV로 대반격...

## 56인치 시제품 공개 ... 최대 크기에 울트라HD 최초 구현

소니(Sony)가 풀HD에 비해 4배 선명한 56인치 OLED(Organic Light Emitting Diode) TV 시제품을 공개하며 LG전자가 주도하는 OLED TV 경쟁에 불을 붙였다.

소니는 1월7일 오후(이하 현지시각)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프레스 컨퍼런스에서 56인치 울트라HD(3840×2160) OLED TV를 선보였다.



행사는 1월8-11일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전시회 <CES 2013> 개막에 하루 앞서 열렸다.

히라이 가즈오(平井一夫) Sony 사장의 소개로 공개된 시제품은 현재까지 공개된 OLED TV 중 최대크기이며 울트라HD 화질을 구현한 것도 처음이다.

Sony는 타이완의 평판TV 대기업인 AUO(AU Optronics)와 패널을 공동으로 개발했다.

LG전자와 삼성전자가 2012년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유럽 최대의 가전전시회 <IFA 2012>에서 나란히 공개한 OLED TV는 55인치였으며, LG전자는 최근 해당제품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출시한 바 있다.

Sony는 컨퍼런스에서 가장 마지막에 공개한 OLED TV 외에 스마트폰인 엑스페리아 Z와 엑스페리아 ZL, 고화질 패널인 트라이루미노스 디스플레이 등을 선보였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화학저널 2013/01/08>